

## 명문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전략



▲ UCLA 로이스 홀, 사진=shutterstock

지금은 2023학년도 미국 대학 편입 시즌이다. 편입 원서 마감일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3월 1일부터 4월 1일 이 사이다.

미국 대학은 편입이 매우 일반적이다. 전체 미국 대학생의 1/3이 편입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옮기거나 2년제 CC에서 4년제 대학으로 옮긴다. 일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확률은 신입생으로 합격할 확률보다 낮다. 그러므로 명문대로 편입을 꿈꾼다면 전략을 잘 짜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교육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마스터즈(ADMISSION MASTERS)' (blog.naver.com/amseoulkorea)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명문대로 편입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학중인 대학에서의 성적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수의 추천서도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다. 강의 중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나, 오피스를 방문해 교수와 이런 저런 토의로 자주 대화를 나눴거나 도움을 청했으면 추천서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

명문 대학들은 편입 지원서도 에세이를 요구한다. 에세이를 통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두도록 신경 쓴다. 목표로 삼

은 대학이 왜 나에게 '적합' (fit) 한 학교인지. 내가 그 대학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바로 그것이다. 타겟 스쿨의 아카데믹 명성과 돋보이는 다양성, 낮은 교수 대 학생 비율, 재학생의 높은 인턴십 참여 비율 등 구체적으로 그 대학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또한 유명한 교수 이름을 대며 그 교수의 연구활동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거나, 교내 스포츠·예술활동에 참여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입을 목표로 하는 대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학교 측에 부각시키는 것이다. 가고자 하는 대학에 긍정적인 이유를 대며 편입 의지를 전달 한다. 현재 재학중인 대학이 '안 좋다'는 식의 이유는 원서를 들여다보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

다음은 2022~2023년 편입 지원자의 주요 대학 합격률이다(\*표시는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 자료 출처: collegetransitions.com).

Princeton University 1%, Harvard University 1%, Columbia University 15%,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 Yale University 2%, \*Stanford University 2%, \*Caltech 4%, \*UCLA 52%, \*UC Berkeley 61%, \*UCI 38%, UC San Diego 55%, \*USC 22%, \*Pomona college 8%, \*Harvey mudd college 9%, \*McKenna college 11%

[www.collegetransitions.com/datasheets/transfer-admission-rates](http://www.collegetransitions.com/datasheets/transfer-admission-rates)를 방문하면 더 많은 대학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수업시간에 '돋보이는' 학생이 되려면

교사가 인정하는 '최고'의 학생이 되려면 단지 교사의 말에 잘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평소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소통을 더 잘하게 되고, 수업에서 교사의 강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교사에게 최고의 학생이 된다면, 대학 입시에 필요한 강력한 추천서(letter of recommendation)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사 추천서는 대입 성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돋보이는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먼저 교사가 믿을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것이다.

교사들의 입장에서 항상 규칙을 잘 따르기만 하는 학생이 가장 훌륭한 학생인 것은 아니다. 물론 규칙 준수는 학교 생활에서 기본이자 바탕이다. 수업 운영을 방해하면서 규칙에 순종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전제 하에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학생의 경우 더 돋보일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런 적극성을 표현하기 어렵다면, 가장 단순하게 '신뢰를 주도록' 학교 생활을 하면 된다. 과제를 제때 제출하고, 수업 시간에 늦지 않으며,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수업에 임하면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돋보이는 학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팁은 '팀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다. 가장 훌륭하게 운영되는 수업의 대

부분은 마치 운동팀과 흡사하다. 다시 말해 교사는 운동팀의 코치와 같이 수업을 리드하고 모든 학생이 선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년 전에는 수업의 모델이 일부 적극적인 학생들만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관찰하기만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요즘 많은 교사들은 훌륭한 팀 플레이어에게 점수를 준다. 수업을 경청하고, 수업의 토론에 의미 있게 기여하며, 수업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학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이상적인 팀 플레이어는 교사뿐만 아니라 수업을 같이 듣는 다른 학생들과도 유연하게 교류한다.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돋보이는 팀 플레이어는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나타난다.

세 번째는 지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이다.

학생들은 보통 '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교실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능력 있는 교사는 단지 가장 똑똑한 학생보다,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학생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럼 학생으로서 지적 호기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일반적으로 이것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수업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할 마음이 없다면 짜증을 내기보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이 내용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뭘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설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29점	30점~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698	\$2,288
Asset Limit	\$15,510	\$30,950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 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